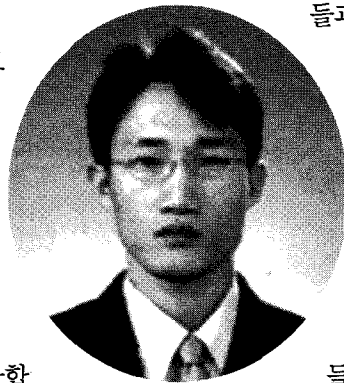


물류연구모임 활성화

20대물류포럼 회장 말아

김종현 / 뉴튼보레알 SCM사업부

30대 물류포럼에 이어 지난 1월 20일 20대들만의 물류모임이 결성됐다. 이 모임은 이익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친목과 서로의 정보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. 모임을 결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분야에 몸담고 있으며, 연령층 또한 비슷하여 더욱더 단합이 잘 되리라 생각된다. 현재 20대 물류포럼의 회원수는 약 56명 정도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. 회원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물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. 20대 물류포럼의 김종현 회장은 “제가 처음 물류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20대들이 ‘필요한 것이 무엇인지’, ‘그 정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’, ‘어떻게 해야 할지’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. 거기다 지금은 과거의 물류와는 다르게 신기술이 물류와 접목되어 가고 있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30대와 40대 그 이상 되시는 분들과 지금 막 물류를 시작하는 새내기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달려나오고 그것을 습득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, 왜 필요한지는 그



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20대 물류포럼만이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. 또한 우리들은 각 분야에서 물류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거나 불과 몇 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20대들입니다. 처음 물류라는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새내기들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물류라는 세계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. 20대 물류포럼이 있기에 처음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”라며 취지를 밝혔다. 김종현 회장은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것을 살려 현재 뉴튼 보레알 e-Logistics 사업부의 SCM팀에서 SCM Solution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. 항상 正道를 걷기 위해 노력한다는 김종현 회장은 앞으로 설문 등을 통해 관심분야를 조사하여 처음 물류를 접하는 사람에게 우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후 분과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. 앞으로 정제된 물류의 흐름을 바꾸고, 자유롭고 원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물류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길 기대해본다. ☐

권해진기자